

#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



**박선규 차관** (2018 평창올림픽 유치 실무위원장)

박선규 차관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KBS에서 20년 3개월 동안 현장기자와 뉴스 앵커로 일했다. 문체부 차관을 지내면서 2018 평창올림픽 유치 실무위원장을 맡아 유치 성공에 일익을 담당하여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 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2011년 7월 5일 오후 5시, 2018 동계올림픽 개최 결정 하루 전날의 더반 국제 컨벤션 센터엔 무거운 적막감이 흘렀다. 나승연 대변인, 조양호 유치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김진선 특임대사, 김연아 선수, 문대성 IOC 위원,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토비 도슨 선수 순서로 마지막 리허설을 끝낸 상태였다. 경직된 표정, 어색한 동작, 매끄럽지 못한 연결... 처음부터 지적된 문제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모두 곤혹스런 표정이었다.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회자 정명훈씨가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차관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동을 만드는 미세한 움직임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누가 기획한 거지요?” 걱정을 잔뜩 실은 정씨의 얘기는

사실 나 또한 그대로 느낀 것이었다. 하지만 어찌랴. 이제 고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말을 마친 정씨는 어느 샌가 대통령 옆으로 자리를 옮겨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해 조양호 위원장 등 대표단 모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누군가 “뒤편, 안시는 우리보다 더 못했답니다. 내일은 다 잘 될 거예요.”라는 말로 분위기를 바꿔 보려했지만 무거움이 다 가시지는 않았다. 걱정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정말 잘 해 왔는데...” 저만치서 읊저버 자격으로 함께 온 탤런트 정준호씨가 토비 도슨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무엇인가 얘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중에 확인하니 정씨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네 얘기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얘기했단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더반 총회, 대한민국의 히든 카드는 토비 도슨이었다. 3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던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돼 스키를 배웠고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해 남자 모굴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낸 인간승리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발탁은 의외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더반 IOC 총회가 열리기 5개월 전, 미국에서 살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이 그와 함께 내 사무실을 찾아 왔다. 친구는 “미국 공중파 방송으로 방영 될 토비 도슨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왔다”며 “한국의 체육정책 책임자로서 인터뷰를 하나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처음 만난 토비 도슨은 예의 바르고 반듯한 청년이었다. 그의 얼굴 어디에서도 ‘입양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만났던 그가 3개월 후 머릿속에 떠올랐다. 5월 18일 스위스 로잔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마지막, 결전의 날 프레젠테이션의

콘셉을 ‘감동’으로 가기로 하면서였다. 고아 아닌 고아로 자라 온갖 역경을 딛고 미국의 스포츠 스타로 성장한 토비 도슨의 개인 스토리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의 목전에 진입해 선진국들의 스포츠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가 나서준다면 그 자체로 ‘감동’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런 계획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참가를 요청했을 때 그는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영광이라며 흔쾌하게 응해줬다.

결전의 날인 7월 6일 오전 7시 30분, 대표단이 이용하는 호텔 식당에 김윤옥 여사가 내려왔다. 평소 대통령과 별도로 식사를 하는데 여사님이 어쩐 일인지 부속실 직원들과 한쪽 편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내가 다가가 얘기했다. “괜찮으시면 9시쯤 우리끼리 잠시 예배 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청와대 근무 당시 기독교신우회장을 맡았던 나를 김윤옥

여사는 기억하고 있었다. “좋지요. 9시에 제 방에서 드리시지요.”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답이 이어졌다. 그렇게 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앞둔 시간, 더반의 호텔 김윤옥 여사 방에서는 10여명의 조출한 예배가 드리졌다.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대표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다.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주시라”고. “IOC 위원들의 마음을 열어 진한 감동이 전해지게 해 주시라”고. 정말 짝한 기도가 올려졌다. 기도를 마친 후 혹시나 싶어 영부인에게 “전하실 말씀이 없느냐?” 여쭙는다. 기다렸다는 듯 큐티 책을 꺼내들으신다. 오늘 새벽 일어나 큐티 책을 펼치니 말씀 제목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으로 오를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었다. 여사께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 제목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대한민국에 올림픽 유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하며 활짝 웃으셨다.

드디어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경쟁 도시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뮌헨, 안시, 평창의 순서였다. 경쟁 도시들의 프레젠테이션은 평이했다.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드디어 우리 차례, 나승연 대변인의 차분한 오프닝에 이어 조양호 유치위원장님이 무대에 올랐다. “뮌헨과 안시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평창보다는 조금 덜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 위원장의 조크에 장내에선 웃음이 터졌다. 초반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잡히고 있었다. 이어 나서는 주자들마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평창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놀라웠다. 분명 사람들은 어제 리허설 때의 그 사람들인데 발표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었다. 현장의 모든 관객들이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주자인 토비 도슨이 무대에 올랐다. “제 이름은 토비 도슨, 한국 이름은 김봉석입니다.”를 시작으로 세 살 때 부산 중앙시장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미국에 입양돼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의 개인사를 설명하며 평창 개최의 당위성을 감동적으로 전했다. 객석 IOC 위원들의 반응을 살피니 팔장을 끼는 등 다소 거만한(?) 모습이었던 그들의 자세가 어느새 토비 도슨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도 내, 외신 가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환상적이었다며 일부러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어제 혹평을 했던 정명훈씨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큰 실수를 했었네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5시, 한국시간은 6일 자정이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쪽지를 펴 보이며 ‘평창’을 선포했다. 한국 대표단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서로 얼싸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건희 회장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63:25:7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다. 그것도 1차 투표에서. “차관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멍하게 서 있는 내손을 덥석 잡으며 외쳤다. 할렐루야! 아멘! 